

# 한국 온 월드컵 트로피... “힘내라 대~한민국”



24일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트로피 월드투어 행사에서 내빈들이 검은 천을 두르고 있던 트로피를 공개한 뒤 파이팅을 치고 있다. (왼쪽부터) 브라질의 우승을 이끈 히바우두 FIFA 글로벌 앰배서더,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 박지성 전북 현대 어드바이저,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 /연합뉴스

## 순금 6.142kg 오리지널 트로피 차범근·박지성 도착 현장 마중 벤투 감독, 카타르서 승리 다짐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우승국에 수여될 월드컵 트로피가 브라질 축구 레전드 히바우두(50)와 함께 한국을 찾았다. 월드컵 스폰서 코카콜라는 'FIFA 월드컵 카타르 2022 트로피 투어'의 하나로 월드컵 트로피가 전세계를 통해 24일 오전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한국을 찾은 트로피는 가품인 '위너스 트로피'가 아닌, 결승전 직후 우승국에 수여되는 '오리지널 트로피'다. 오리지널 트로피는 우승국도 잠시만 보관할 수 있을 뿐이

며, FIFA가 일정 기간 뒤 오리지널 트로피를 회수하면, 우승국은 위너스 트로피를 보관하게 된다. 오리지널 트로피는 순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무게는 6.142kg이다. 두 명의 선수가 지구를 높이 든 모습을 형상화했다. 전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스포츠 상징 중 하나다. 2006년 시작한 트로피 투어는 5회째를 맞이했으며, 트로피가 한국을 찾은 것은 2014년에 이어 8년 만의 일이다. 올해 투어는 본선 진출국인 카타르를 포함해 전 세계 51개국에서 진행된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한다.

트로피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히바우두는 역대 최고의 새도 스트라이커로 꼽힌다. 히바우두는 2002 한일 월드컵에서 브라질의 우승에 이바지해 한국과 인연이 있다. 한국 축구 레전드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과 박지성 전북 현대 어드바이저가 이날 전세계 도착 현장에 마중 나가 트로피의 한국 방문을 환영했다. 월드컵 트로피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축구 팬들에게는 오리지널 트로피를 가까이서 보고 기념사진을 찍을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안세영, 가볍게 16강 티켓

세계개인선수권대회 여자단식  
혼복 서승재·채유정 등도 16강



안세영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20·세계랭킹 3위)이 세계개인선수권대회 첫 경기에서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한국 선수 중 가장 먼저 16강행을 확정했다.

광주 출신 안세영은 지난 23일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경기장에서 열린 2022 세계개인선수권대회 여자단식 32강전에서 베트남의 투이 린 응우옌을 2-0(21-18 21-10)으로 꺾었다.

부전승으로 64강전을 치르지 않고 곧바로 32강전에 나선 안세영은 한 수 위 기량을 선보이며 가볍게 16강 티켓을 거머쥐었다.

1세트 5-5에서 앞서 나가기 시작한 안세영은 이후 단 한 번도 리드를 내주지 않고 먼저 세트를 따냈다.

안세영은 2세트에서도 11-6 이후 7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안세영은 25일 16강전에서 미국의 베이인장과 8강 진출을 놓고 맞승부를 펼친다.

안세영이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출전 사상 첫 메달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1977년 스웨덴에서 처음 열린 세계개인선수권 대회는 개인전 5개 종목(남자단식, 여자단식,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지는 대회 중 최고 권위를 가진 국제 대회다. 한국은 남자 복식에서 4차례, 여자 복식에서 1차례, 혼합 복식에서 5차례 우승을 일궜지만 유독 남녀 단식 종목에선 우승과 인연이 없었다.

1993년 8회 대회에서 여자 단식 방수현이 준우승을 차지했고, 1995년 9회 대회에선 박성우가 남자 단식 은메달을 획득한 것이 가장 좋은 성적이다.

한편, 배드민턴 여자단식팀의 만년나 김가는

(24)은 32강전에서 일본의 다카하시 사야카에게 1-2(21-9 16-21 13-21)로 역전패를 당해 16강행이 좌절됐다. 다른 종목에서도 한국 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졌다. 혼합복식에선 서승재(25)·채유정(27)이 16강행을 확정했고, 최솔규(27)·신승찬(28)은 32강에 진출했다. 여자복식 백하나(22)·이유림(22)도 첫 경기에서 승리하며 32강에 합류했다. 여자복식에선 이소희(28)·신승찬(28)·김소영(30)·공희용(26)·정나은(22)·김혜정(24)·백하나·이유림이 32강전에 진출한다. /연합뉴스

## 이강인, 유럽 5대 리그 '주간 베스트 11'

평점 8.6 받아 음바페와 나란히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라리가) 마요르카에서 뛰는 이강인(21·사진)이 유럽 프로축구 주간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축구 전문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이 24일(한국시간) 발표한 유럽 5대 리그 베스트 11을 보면 이강인이 평점 8.6을 받아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평점 10)와 함께 최전방 자원으로 낙점됐다.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가 평점 9.7, 이스마엘 베네세르(AC 밀란)가 8.6을 받아 중원에 위치한 가운데 김슬리 코망(바이에른 뮌헨·평점 9.4), 아르망 로리엔데(로리랑·평점 9.3)가 양 측면에서 공격을 지원한다.



이강인

이때체가 선정하는 베스트 11은 유럽 5대 리그로 꼽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독일 분데스리가, 스페인 라리가, 이탈리아 세리에A, 프랑스 리그1을 대상으로 한다.

이강인은 지난 21일 스페인 마요르카의 비자트 마요르카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알 베티스와 2022-2023시즌 라리가 2라운드 선발 출전해 후반 11분 1-1을 만드는 동점 골을 도왔다.

마요르카는 페널티킥으로만 베티스의 보르하 이글레시아스에게 2골을 내주고 1-2로 졌지만 이강인은 도움 장면 외에도 위협적인 상황을 여러 번

연출하며 만점 활약을 펼쳤다. 후반 40분에는 프리킥 상황에서 날카로운 왼발 감아차기 슈팅을 날려 크로스바를 맞추기도 했다.

경기 후 후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에게진 팀 선수에게는 이례적으로 양 팀을 통틀어 가장 높은 8.7의 평점을 매겼다. 8점대 평점을 받은 선수는 이강인 하나뿐이었다.

이런 활약을 인정받은 이강인은 또 다른 축구 전문 통계 사이트 소파스코어가 뽑은 라리가 2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강인,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안수 파티(이상 FC바르셀로나)가 공격진을 꾸린 가운데 루카 모드리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이상 레알 마드리드) 등 세계적 선수도 이름을 올렸다.

한국 수비수 최초로 세리에A에 진출한 김민재도 후스코어드 선정 리그 베스트 11에 들어가며 연착륙하는 모양새다. 평점 7.8을 받은 김민재는 AS로마의 크리스 스몰링과 함께 리그 대표 중앙 수비수로 뽑혔다. /연합뉴스

## 황의조,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떨 듯

노팅엄 포리스트로 이적 뒤 임대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황의조(보르도·사진)가 박리고 입성 문턱에서 '1보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황인범(올림피아코스)과 함께 그리스에서 '2보 전진'에 도전한다.

24일(한국시간) 프랑스 보르도 소속인 황의조가 그리스 명문 올림피아코스 우선 임대를 전제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노팅엄 포리스트로 이적한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프랑스 스포츠 전문 유력 매체 레퀴프에 따르면 노팅엄은 400만 유로(약 53억원)를 보르도에 우선 지급한 뒤 100만 유로(약 13억원)를 옵션으로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축구 이적 시장에 정통한 언론인 파브리스 로마노도 트위터를 통해 황의



황의조

조와 노팅엄이 3년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보도 내용대로 이루어진다면, 황의조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결말이다. 황의조는 당초 EPL로 직행해 대표팀 동료인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프턴)과 함께 잉글랜드 무대를 누비고 싶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팅엄은 더 많은 금액을 보르도에 제시했다. 다만, 노팅엄과 구단주가 같은 올림피아코스에서 황의조가 1년간 임대로 먼저 뛰어주기를 바랐다.

결국 차기 행선지는 노팅엄으로 좁혀지는 모양새다. 5대 박리고 중 하나인 프랑스 리그1에서 뛰던 황의조로서 올림피아코스행은 사실상 '1보 후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1년 뒤 EPL 입성이 '100%'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노팅엄은 막 챔피언십(2부 리그)에서 EPL로 승격할 팀이다. 경쟁이 극심한 EPL 무대에서 승격팀이 곧바로 강등당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이러면 황의조는 자칫 다시 새 팀을 찾아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래도 각급 대표팀에서 함께 좋은 성과를 내온 미드필더 황인범이 올림피아코스에서 함께 뛰는 점은 황의조에게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둘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좋은 기억이 있다. /연합뉴스